

‘바레인에 극적 승리’ 중국팀, 월드컵 희망 살렸다!

— 후반 추가시간 극적 풀로 1-0 승리



중국남자축대표팀이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극장풀로 바레인을 꺾었다.

중국은 14일 (이하 중국시간) 바레인 리파제경기장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18강전 C조 5차전에서 1대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최하위까지 추락했던 중국팀은 2연승을 달리며 소조 4위로 경종 올라섰다.

앞서 일본전 0-7 패배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1-2, 오스트랄리아에 1-3으로 연달아 졌던 중국팀은 인

도네시아전 2-1 승리에 이어 이날까지 승리하며 3연패 뒤 2연승을 기록했다.

이날 무뢰가 부상자로 결장한 가운데 장옥녕과 바이허라무가 최전방에 나섰다. 경기 11분경에 장옥녕의 1대1 슈팅이 바레인 키퍼에 막혔는데 이는 중국팀이 전반전에 살린 유일한 슈팅이었다. 반면 바레인은 슈팅에서 우세를 잡아가는 했지만 유효 슈팅이 제로였다.

후반전에 들어 두 팀은 공격의 흐름을 올리면서 득점 기회를 두루 창출했다. 후반 53분에 서호양이 코너킥을

올렸고 장옥녕이 헤딩으로 골문을 노렸지만 또 한번 막혔다.

그러다 경기가 90분에 림박해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87분에 바레인의 허람이 금지구역 안에서 때린 슈팅이 골문을 흔들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결과 무효풀로 선언되며 한숨을 돌렸다. 이어 4분 뒤에 중국팀은 반격을 발동했고 바레인의 견어내기 실수를 가로챈 왕해건이 바레인 수비수를 따돌리고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장옥녕이 오른발로 밀어넣어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이날 승리에 힘입어 한때 최하위까



▲ 11월 14일, 중국팀 선발 출전 선수들이 경기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날 경기의 결승골을 터뜨린 중국팀 공격수 장옥녕이 경기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 처졌던 중국팀은 2승 3패(승점 6)로 조 4위에 올라섰고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 희망을 높였다. C조는 일본이 승점 10점으로 단독 선두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2위 오스트랄리아, 3위 사우디아라비아, 4위 중국까지 모두 승점 6점으로 맞붙어 있다.

이날 중국팀은 점유율 29%를 기록, 71%의 바레인에 주도권을 내주고 밀렸지만 막판 함부로 기사화생했다.

한편 오는 19일 저녁 8시에 중국팀은 하문 홈장에서 일본팀과 18강전 6차전 경기를 펼치게 된다.

/ 신화사

2024 길림성 청소년 무술체계동작 선수권대회 연길서



11월 15일, ‘성탁’컵 2024 길림성 청소년 무술체계동작(套路) 선수권대회가 연길에서 개최되었다. 전성각 지역에서 온 800여명의 청소년이 경기에 참가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대 참가 인원 대회로 기록되었다.

이번 경기대회는 길림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체육국 탁구·하키·로궁·무술운동관리중심 및 연길시무술협회에서 주관했다.

나아가 무술운동을 널리 보급하고 무술에 대한 인식과 흥미를 제고하며 연길 관광의 새로운 하이лай트를 육성하고 스포츠 관광 산

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료해에 따르면 경기 종목은 권술, 단기계(短器械), 장기계와 합동권(集体拳)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성각시, 주, 현(시, 구)과 각종 각류 체육운동학교, 중소학교, 구락부에서 추천한 선수들이 시합에 참가했다.

경기는 11월 17일까지 이어졌으며 최종 각 종목마다 상위 8명에게 성적증서를 수여하고 ‘스포츠도덕풍격상’도 설치했다.

/ 길림일보



‘단결분발의 정신으로’

전국소수민족운동회에 나서는 길림성대표단

제 12회 전국소수민족통체육운동회가 11월 22일 해남성 삼아에서 개막된다.

길림성대표단은 도합 11개 경기 종목과 4개 표현종목의 경기에 참가한다. 현재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막판 스퍼트(冲刺)를 올리며 의욕적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제 12회 전국소수민족통체육운동회 경기지휘중심에 따르면 운동회 경기 전체 일정과 경기 종목이 이미 전부 확정되었다.

이번 운동회 종목은 경기 종목과 공연 종목으로 나뉘는데 경기 종목은 18개로 각각 화포(花炮), 진주구(珍珠球), 목구(木球), 축구(蹴球), 제기차기, 룡주, 독죽표(独竹漂), 그네, 서노(射弩), 팽이, 줄다리기(押加), 고각경속(高脚竞速),

판자경속(板鞋竞速), 민족무술, 민족씨름, 민족마술, 민족건강체조, 야자나무타기경속(攀椰竞速)이다. 이중 야자나무타기경속은 이번 대회에서 신설한 경기 종목이다. 공연 종목으로는 경기(竞技), 기교와 종합 3개 류형이다.

한편 11월 17일, 제 12회 전국소수민족통체육운동회 성화 실지 봉송 행사가 삼아에서 열렸다.

각 업종에서 온 107명 봉송주자가 ‘해상·륙지·상공’의 봉송 방식을 통해 성화 봉송을 마쳤는데 민족대 단결과 중국꿈을 함께 실현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전달함과 더불어 억만 중화의 아들딸들이 단결분투하고 로정에 뜻을 달아 전진하는 웅대한 포부를 불태웠다.

/ 길림일보



2024-2025 길림성 청소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열려



11월 15일, 2024-2025 길림성 청소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길림성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열렸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길림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체육국 빙상운동관리중심에서 주관했으며 경기는 3일간 이어졌다. 전 성 39개 참가단위에서 온 500여명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축전을 펼쳤다.

길림성 청소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운동선수들의 풍채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년도 스피드스케이팅 청소년 아마추어 훈련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는 참가 선수의 연령대가 10세에서 18세 사이이며 총 갑, 을, 병, 정 4개의

년령층으로 구성된 54개의 경기 종목이 포함되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줄곧 우리 성 빙상운동의 기초 종목이자 우세 종목의 하나로서 부단히 국가팀에 수준 높은 선수들을 수송하고 있으며 최근년간 리기시 등 다수의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배양해냈다.

경기 심판장 주우양은 이번 경기 성적을 통해 우리 성 스피드스케이팅 청소년 선수들의 참가 수준이 여전히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선수들은 자신의 평소 가장 좋은 훈련 상태를 경기에서 보여주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뻐한 건 경기중 많은 선수들이 본인의 가장 좋은 성적을 따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길림신문넷

각지의 수준 높은 빙설경기대회 개최 격려

국가체육총국: 전제는 현지의 실정에 맞게 택하는 것

앞으로 수준 높은 빙설경기대회 공급을 늘려 각지에서 현지 실정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빙설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일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의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체육총국 체육경제사 사장 양설동이 밝혔다.

양설동은 경제 발전에 대한 체육경기대회의 견인 역할이 아주 크다는데 의하면 제 14회 전국동계운동대회 기간 홀루부이르는 연인수로 도합 177.4만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체육 소비와 기타 소비 도합 320억원을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양설동은 <빙설운동의 고품질 발전

으로 빙설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데 관한 약간의 의견>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체육총국은 주요하게 세가지 면에서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고 피로했다.

첫째, 수준 높은 빙설경기대회 공급을 늘려 각지에서 현지 실정에 걸맞는 세계 피겨스케이팅 경기, 중국 컬링(冰壶) 리그,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국제스키연맹 스노보드 및 자유식 스키점프 월드컵 등 수준 높은 빙설경기대회를 개최, 주관 또는 신청 개최하는 것을 격려하고 ‘전국 대중 빙설시즌’ 활동을 조직하여 각지에서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빙설 활동을 개최해 민중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도록 인도한다.

둘째, 경기대회와 관련 업종의 융합 발전을 추동한다. 할빈동계아시안 게임 등 관련 빙설경기대회와 결부하여 ‘경기대회를 따라 관광하기’ 활동을 조직하고 ‘경기대회를 따라 관광하기’ 2024-2025 빙설시즌 전국 빙설경기대회 활동 목록을 발표하여 경기 행사와 문화, 관광, 상무의 융합을 촉진하고 경기대회 경제의 잠재력을 더한층 방출하며 빙설 및 관련 소비를 확대한다.

셋째, 빙설경기대회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한다. 관련 부문의 소통, 조율을 더한층 강화하여 경기대회 봉사 보장을 개선하고 빙설 보험 상품을 개발하며 소비 지불 봉사를 최적화하는 등 면에서 합력을 이룸으로써 빙설경기대회의 경영 효과를 부단히 제고한다.

양설동은 대중 빙설운동의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국가체육총국은 계속하여 빙설운동 ‘남방과 서부, 동부 확장’ 전략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빙설운동 안전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관련 기준을 제정한다.

/ 중신사

‘통산 910호 풀 콧!’ 곧 마흔 호날두의 은퇴 계획? “동기부여 없으면 그만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1985년생인 호날두는 곧 만으로 40세가 된다.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왕성하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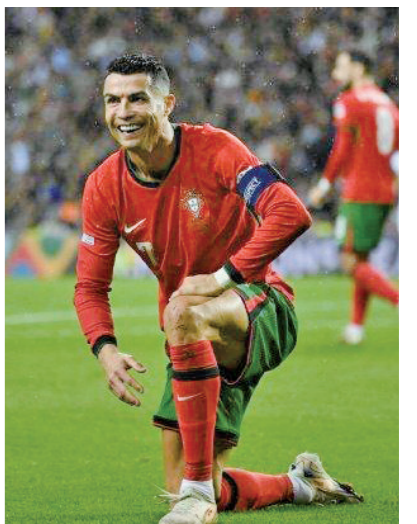
호날두는 16일 (중국시간)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뽀스카와의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 A 1조 5차전 경기에 선발 출전해 2골을 터뜨리며 뽀르투갈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호날두는 1-0으로 앞선 후반 27분 페널티킥으로 득점했고 42분에는 환상적인 바이시클킥(倒勾球)으로 썩기골을 터뜨렸다.

호날두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뽀르투갈대표팀에서만 A매치 217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여전히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 2004년 A매치에 데뷔해 20년간 대표팀 유니폼을 벗지 않고 있다.

프로 리그에서도 맹활약한다. 지난 시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35골을 폭격했고 이번 시즌에도 9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여전히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 은퇴하기엔 가까운 세 사이다.

호날두는 경기후 은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언젠가는 일어



날 일이다. 아마도 1~2년내로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잘 모르겠다. 곧 40세가 되는데 나는 여전히 젊고 있다. 동기부여가 있는 한 계속할 것이다. 언젠가 동기부여가 없는 날에는 그만둘 생각”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1~2년내로 은퇴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호날두는 2년후 북중미월드컵까지 노릴 가능성을 크다. 만 41세에 월드컵 무대를 누비는 호날두의 모습은 대회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 외신종합